전남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시장 선점한다"

이차전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실증 시범사업 추진
잉여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해 전기차 충전에 사용

전남도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시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이차전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실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기차 이용과 함께 배터리 수요도 급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이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도내에서 발전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과 한전의 심야전력을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에 대한 국제적 전과정평가(LCA) 규제가 강화돼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및 글로벌 리딩을 위한 '전기차 전주기에 대한 환경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전과정평가는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는 체계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전기차 탄소발자국을 공개하기로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경우 판매 금지 조치까지 계획하고 있다. 탄소발자국은 개인이나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에 걸친 탄소배출, 환경, 자원순환 등 통합 환경정보 수집·분석·운용·유통·활용체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에서도 지난 5일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차전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탄소배출 등 통합 환경정보 수집·분석·관리·활용·유통을 통한 국제규제, 탄소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환경정보 공공 유통 활용 플랫폼(마켓플레이스)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 통합환경정보 운영을 위한 제도 및 표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 활용 신서비스 시장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수집·활용 및 서비스 플랫폼 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번 실증 시범사업은 전남 중소기업인 ㈜포드림과 운행자동차 국가 검사 업무를 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수행한다. ㈜포드림은 2006년 설립된 사회안전망 분야 데이터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전과정평가 기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모든 자동차의 고전원 전기장치와 전자장치를 검사하는 전자장치진단기(KADIS)를 자체 개발해 전기자동차 검사 시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을 진단할 계획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실증사업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사용후 배터리 전·후방 연계 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기존 연구개발(R&D) 중심 과제에서 실질적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실증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개막

1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국제기후환경산업전에서 내빈들이 쓰레기 수거 기계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시 'SRF 사용허가' 행정소송 항소장 제출

윤병태 시장 "주민 건강권 간과한 결정" 유감의 뜻 밝혀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주시는 14일 윤병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고형연료 품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2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난방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SRF에 대해 나주시가 지난해 10월 18일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난방공사에서 제기한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다.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단 한 번의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난방공사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 시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허가를 신청했다"면서 "지난해에는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 "소송만으로 SRF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며 "난방공사를 포함한 광주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1인 자영업 보험료 지원 확대

광주시, 고용·산재보험료 50%

광주시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고금리·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기(신규) 가입한 광주지역 소재 1인 자영업자이며, 기존 최대 3년간 30% 지원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9월부터 50%로 확대한다. 기존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시스템(https://jk.gepa.or.kr)에서 받는다. 보험료지원신청서와 정보제공동의서만 입력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자 본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납부 확인을 거쳐 사업자 계좌로 분기별 입금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

광주교육청, 교육 기본방향 확정…5대 정책·3대 과제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직선 4기 교육상으로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광주교육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5대 주요정책 및 3대 역점과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지표와 슬로건도 확정했다.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은 학생들이 꿈꾸는 삶이 현실이 되도록 인간중심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교육구성원과 미래사회를 함께 준비하고 열어가자는 뜻도 담겼다.

교육지표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은 광주교육의 인재상을 제시한 것으로, 아이들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이를 주도하는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슬로건으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확정했다. 평소 이정선 교육감의 '교육은 학생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교육적 혜택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함축했다.

혁신적 포용교육을 통해 실현할 5대 주요시책은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교육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 ▲다함께 주인되는 상생교육이다.

3대 역점과제는 ▲다양성을 품은 실력향상 ▲미래로 가는 AI교육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협치다.

이정선 교육감은 "직선 4기 광주교육은 광주시민과 교육가족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손잡고 협력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며 "직선 4기 광주교육 방향이 미래 광주의 변화와 발전에 공헌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남부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유치

총사업비 27억9000만원…조사 분석 저감 방법 연구 등 기능

전남도가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목포대와 협력해 환경부 공모사업인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유치했다.

건립에는 총사업비 27억9000만원이 소요되며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센터는 앞으로 남부권 미세먼지를 조사·분석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미세먼지 저감방법 연구 및 교육 홍보활동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미세먼지 연구·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도민 건강 피해 예방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관기관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사업관리, 미세먼지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등을, 목포대는 미세먼지 관측, 원인분석 등 연구부문을 맡으며 전남도와 4개 시·군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통해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대기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굴·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망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유동인구 폭발 증가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MG골프클럽

구 분	이용기간	정상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中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 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中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